

# KIA 우승 삼페인 '카운트 다운'

##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이 우승 삼페인을 터트리기 위한 카운트 다운을 시작한다.

6연전 일정을 소화했던 KIA 타이거즈가 잠시 숨을 고른다. 10·11일 경기 없이 쉬어가는 KIA는 12일 롯데 자이언츠와 홈에서 맞대결을 갖는다. 14·15일에는 지난 주말 3연전 상대였던 키움 히어로즈와 다시 만나게 된다.

KIA는 6연전 강행군을 펼친 지난주 투타의 밸런스로 5승 1패를 기록하면서 매직넘버를 '6'으로 줄였다.

지난주 선발진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제몫을 해줬다.

3일 LG전에 이어 8일 키움전까지 출격할 양현종은 13이닝을 책임졌다. 특히 8일 경기에서는 후라도와 팽팽한 투수전을 전개하면서 10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에릭 듀오'도 동반 활약을 하면서 연승의 주역이었다.

5일 한화를 상대로 5번째 등판에 나선 에릭 라우어는 자신이 직접 경기를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테스트했다. 그리고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6.1이닝 3실점의 피칭으로 첫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7일 키움전에서 두 번째 등판을 소화한 에릭 스타우트는 5이닝 1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스타우트는 8개의 탈삼진도 뽑아내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부상 여파로 시즌 중반 급히 선발진에 합류한 김도현과 활동하기도 나란히 5이닝을 책임지는 등 마운드가 순조롭게 돌아갔다.

12일 롯데와 홈에서 격돌  
14·15일 키움과 다시 만나  
3연승하고 삼성 결과 따라  
안방에서 우승 확정할 수도  
양현종·라우어·스타우트 출격

타선의 힘도 좋았다. 무엇보다 고른 활약이 눈에 띄었다.

지난주 김선빈, 서건창, 박찬호, 소크라테스, 김도영이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8월 타율 0.393을 장식했던 김선빈은 9월 6경기에서 0.455의 타율을 찍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군 복귀 후 첫 경기에 나선 서건창은 5일 한화전에서 끝내기 안타를 장식했다.

3일 LG를 상대로 3안타를 수확한 박찬호는 7·8일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지만 3득점을 올렸다.

소크라테스는 7일 키움전에서 결승타와 함께 전구단 상대홈런(시즌 15번째)도 장식했다.

한 주의 대미는 김도영이 장식했다. 김도영은 8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2-2로 맞선 8회 1사 2루에서 베이스 맞는 타구로 '행운의 3루타'를 장식, 결승타와 100타점을 동시에 완성했다.

이 안타로 김도영은 박재홍, 태입즈에 이어 KBO리그 역사상 세 번째 '30홈런-30도루-100득점-100타점'을 완성했다.

10일까지 휴식을 취하는 선수단은 11일 훈련을 갖고 이번 주 일정을 준비한다.

3경기만 소화하는 만큼 외국인 원투펀치와 양현



4연승 질주로 매직넘버를 '6'으로 줄인 KIA 타이거즈가 12일 롯데 자이언츠, 14·15일 키움 히어로즈와 홈경기를 갖고 우승 도전을 이어간다. 7일 키움전에서 5이닝 1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된 스타우트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종으로 선발진을 꾸리게 된다.

마운드 총력전을 앞둔 KIA는 타선의 뒷심을 더해 매직넘버 지우기에 나선다. KIA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15일 안방에서 우승을 확정하는 것이다.

자력으로는 이번 주 우승에 이를 수 없다. 일단 KIA가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해야 하고, 4경기를 소화하는 2위 삼성라이온즈가 패배를 이어가야 한다.

삼성 11·12일 한화 이글스, 14·15일 SSG 랜

더스와 맞대결을 벌인다. 삼성은 원정길에서 치열한 중위권 싸움 중인 한화와 SSG를 상대한다.

안방에서 일찍 우승을 확정하고 싶은 KIA는 3경기 총력전 뒤 삼성의 경기까지 살펴볼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9일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폐회식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 한계는 없었다...땀·눈물·환희만 있었다

파리 패럴림픽 폐막...한국 금6·은10·동14개 종합 22위 '목표 초과'  
광주·전남, 탁구·보치아·배드민턴·사격 등서 금1·은4·동4개 '활약'

패럴림픽 영웅들의 피땀눈물이 담긴 12일간의 스포츠 열정이 막을 내렸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이 9일(이하 한국시간) 파리 인근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막식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이번 패럴림픽에는 전세계 184개국 4400여명이 참가해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17개 종목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총 30개(금6·은10·동14)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5개(탁구3, 보치아1, 사격1) 이상의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짰고, 이를 뛰어넘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8개 종목에 출전한 광주·전남 선수 17명은 탁구·

보치아·배드민턴·사격 등 4개 종목에서 총 9개(금1·은4·동4)의 메달을 따냈다.

탁구 터줏대감 김영건(광주시청)이 금빛 스매싱을 선보였고 탁구 서수연·김정길·박진철(이상 광주시청), 보치아 강선희(한전KPS), 배드민턴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격 이윤리(안도군청)도 이번 대회 메달리스트가 됐다.

'파리는 날마다 축제'(PARIS EST UNE FETE)라는 주제로 열린 폐막식에서는 프랑스 가수 산타와 장애인 트럼펫 연주자 앙드레 페이디가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달 29일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 기수를 맡았던 카누 최용범(도원이앤씨)은 이번 폐막식에서도 태극기를 들었다.

토니 에스탕게 파리 2024 위원장과 앤드류 파슨

스 IPC 위원장은 대회 기간 걸려있던 아지토스(패럴림픽 공식 엠블럼)기가 내려지자 차기 대회 개최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캐런 베스 시장에 전달했다.

이후 화면을 통해 열기구 성화대가 있는 파리 킬리리 정원이 송출됐다.

시각장애 축구선수 프레데릭 빌레루와 장애인 수영선수 우고 디디에가 경기장 안으로 들고 온 성화 불씨를 배드민턴 사물 노아케스와 육상 글로리아 아그블레마농이 이어받았다.

이어 사이클 마티외 보스동이 성화를 들고 단상 위에 올랐고, 보치아 오펜 올베르가 입으로 불을 끄면서 지난 12일간 파리를 밝게 비췄던 열기구 성화가 꺼졌다.

한편, 이번 패럴림픽에서는 총 220개의 메달을 획득한 중국(금 94)이 종합 1위를 기록했으며 2위 영국(금 49)과 3위 미국(금 36)이 뒤를 이었다.

제18회 패럴림픽은 오는 2028년 미국 LA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

## '전설 꺾었다' 양용은 PGA 시니어 첫 우승

챔피언스 어센션채리티클래식 연장에서 독일 랭거 제쳐

양용은(52·사진)이 미국 시니어 무대에서 첫 우승을 따냈다.

양용은은 9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노우드 힐스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 어센션채리티클래식(총상금 210만 달러) 최종일 연장전에서 베르나르트 랭거(독일)를 제쳤다.

둘은 최종 3라운드를 합쳐 13언더파 200타로 마쳐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벌였다.

양용은은 5언더파 65타를 쳤고, 랭거는 7언더파 64타를 몰아쳤다.

2022년부터 만 50세 이상 선수가 출전하는 PGA 투어 챔피언스에서 뽀 양용은은 데뷔 3년 만에 72번째 출전 경기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양용은은 지난 71차례 대회에서 준우승 두 번과 3위 세 번 등 우승 기회가 없지 않았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그동안 애를 태웠다.

특히 신인이던 지난 2022년 이 대회에서 파드릭 해링턴(아일랜드)에 1타가 뒤져 2위에 그쳤던 아쉬움도 말끔하게 털어냈다.

2009년 PGA 챔피언십 때 당대 최고의 골프스타 타이거 우즈(미국)를 최종일 맞대결에서 제압하고 PGA 투어 첫 우승을 이뤄냈던 양용은은 이번에는 시니어 투어에서 최고령, 최다승 기록을 지닌 '전설' 랭거를 제쳤다.

PGA 투어 챔피언스에서 한국 선수 우승은 메이저대회인 시니어 오픈 등 2승을 올린 최경주에 이어 양용은이 두 번째다.

스튜어트 싱크(미국)와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서 나선 양용은은 16번 홀까지 4타를 줄였지만, 랭거와 함께 싱크에 1타 뒤졌다.

17번 홀(파4)에서 싱크가 티샷 실수로 1타를 잃었고 양용은은 2m 버디 기회를 살려 1타차 선



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18번 홀(파4)에서 랭거가 버디를 잡아내며 승부는 연장전으로 넘어갔다.

첫 번째 연장전에서 랭거의 3m 버디 퍼트가 홀을 살짝 비껴간 뒤 양용은은 2m 남짓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67세 1개월의 랭거는 지난해 US 시니어오픈에서 세운 최고령 우승(65세10개월5일) 기록 경신과 최다승(46승) 기록을 한꺼번에 연장할 기회를 놓쳤다.

위창수는 공동 51위(1오버파 214타), 최경주는 공동 60위(3오버파 216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 전남 당구 선수단, 전국대회 '활약'

최호일-김행직 3쿠션 복식 우승...박정현 여자부 3쿠션 준우승

전남 당구 선수단이 경남 고성군수배 전국당구대회에서 활약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남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전남의 최호일-김행직이 3쿠션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최호일-김행직은 준결승에서 김형근-원재운(서울)을 30-16(17이닝)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뒤 허정환-이준환(경남)을 상대로 30-25(39이닝)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정현(전남)은 여자부 3쿠션에서 1위 김하은(충북)에 이어 준우승을 기록했다.

박정현은 준결승에서 최다영(세종)에 25-18(33이닝)로 승리했고 결승에서 김하은에 17-25(27이닝)로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박정현은 김하은과 함께 10일 프랑스 블루아에서 열리는 '2024 제12회 세계여자3쿠션 선수권대회'에 나서 세계 정상에 도전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